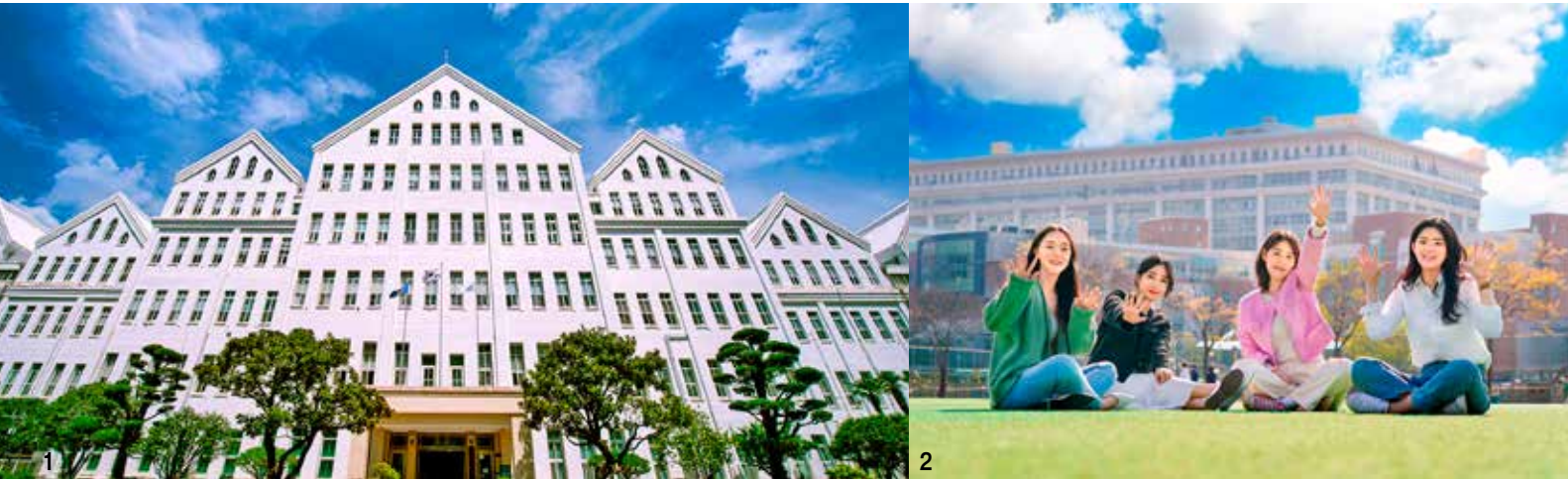


# 조선대, 지역 성장 이끄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우뚝

## 중기부 등 5개 사업 과제 수주 등 올해 627억 원 규모 사업 선정



1 조선대 전경 2 조선대 교정에서 학생들이 정담을 나누고 있다.

조선대학교가 호남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굵직한 사업을 잇달아 유치·조성해 눈길을 끈다. 조선대는 지역의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아시아 e스포츠 문화 중심조성, 디지털 트윈 기술에 힘을 쏟아 지역 거점 지역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의 e스포츠 경기장을 확보한 조선대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일환인 'e스포츠 산업 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에 선정돼 광주 e스포츠 산업 플랫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 7년간 16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국내·외 e스포츠 기관과 협력해 차별화된 경영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민의 제조·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초점을 맞춘다. 조선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75억 원의 국비를 받는다. 창업지원단은 혁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첨단 고가 기자재를 이용해 재학생 교육과 지역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운영기관으로도 발돋움해 나간다. 조선대는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2

년도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에 대한 사전진단, 컨설팅, 연구·개발(R&D) 기획, 협력 R&D 지원 및 사업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수 인력풀을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K-바이오 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도 주관기관(일반형)으로 참여한다. 올해부터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해 산·학·연·병·관 공유 협력을 통해 시설·장비, 임상 능력(MD) 등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 내 인프라 및 자원을 결합한다.

또 AI헬스케어연구센터의 김윤태 교수 연구팀은 총 6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디지털 지능 트윈 기반 실시간 비대면 심혈관계 질환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민영돈 총장은 "민립대학으로서 미래 관점의 역량기반 교육 강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확대, 산학연 협력 채널 조직화 및 다양화 등 지역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 거점 대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100 years with the region,  
To the future with our students